

수형자의 전과와 그 주요 Correlates(사회인구학적 변인, 경제적 지위, 총 복역기간, 수형자 친구, 자기통제력): 이론적 예측과 경험적 검증

민 수 홍*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 수행한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경험적 분석에서 전과의 유의미한 correlate로 나온 총 복역기간은 가설 2)의 논리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전과가 많으면 그 결과로 총 복역기간은 길어지기 쉽다. 즉 총 복역기간은 차별교제이론의 논리가 아니라 누범이 가져오는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횡단적 자료다보니 correlates와 수형자의 전과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과관계에서 요구되는 원인의 시간적 우선성 조건이 충족되려면 패널자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단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한편, 패널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죄와 비행의 분야에서 패널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될 때까지는 잘 수집된 횡단적 자료의 활용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수형자 전과의 correlates가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적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들은 범죄이론의 기초가 되고, 범죄관련 논쟁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전공 부교수, 사회학 박사

I. 서 론

1. 문제제기

행형법에서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1조2). 일반적으로 수형자는 자유형을 선고받고 세상과 격리되어 교도소라는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에서 생활하는 서로 간에 동질적인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수형자들 중에는 초범자부터 누범자¹⁾에 이르기까지 실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수형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전과 차이는 이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를 예측하고 수형자의 범죄행동을 예측할 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정, 변지은, 2001).

수형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전과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답을 찾아 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수형자의 전과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수형자 전과의 correlates를 찾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려면 관심 분야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수의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역적 방법으로 경험적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입증된 주요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수형자의 전과 차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많은 범죄이론들이 일반인과 범죄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론 논리를 확장시키면 범죄자 사이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현실에서 귀납적 방법을 택하여 수형자의 전과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경험적 연구가

1) 이 논문에서 누범은 범죄를 범하여 형사상의 처분이나 재판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장영민, 탁희성, 1994).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수의 새로운 연구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주요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는 연역적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긴장이론, 차별교제이론, 자기통제이론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수형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전과의 차이를 설명해 보고 이러한 설명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지 검증해 보겠다.

2. 연구의의

많은 범죄이론들 가운데 경험적 타당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론들은 범죄의 correlates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고 이들에 기초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범죄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²⁾ 즉 좋은 이론은 정확한 correlates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이 제시되었을 때 이것을 일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알려진 correlate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범죄와 관련된 correlates에 대한 연구는 실증과학으로서의 범죄학 발달에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의 범죄학 연구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면, 연구의 기초가 되는 correlates를 소홀히 한 채 정책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영역이 청소년 비행이 되었건 성인 범죄가 되었건 차이가 없다. 이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격이라 하겠다. 범죄학이 발달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범죄와 관련된 correlates를 아 연구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는 일이라고 믿는다.

범죄학 분야 가운데서도 축적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인 수형자의 전과 분야에서 correlates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가 의도하는 바이고 동시에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범죄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correlates를 찾음으로써 귀납적 방법을 택했을 때 요구되는 시간과 돈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형자 연구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 세계적으로 경험적 타당도가 입증되어 주요 범죄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은 허쉬와 갓프레드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Hirschi and Gottfredson, 1993).

II. 이론적 논의

아래에서는 사회긴장이론, 차별교제이론, 자기통제이론으로부터 각기 수형자들의 전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1. 사회긴장이론

머튼(Merton, 1938)은 문화적 목표와 그에 이르는 제도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긴장이 형성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미국 사회를 예로 들면, 사회는 경제적 성공(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게 된다. 그 결과로 소수민족이건 하위계층이건 상관없이 모두 경제적 성공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윤리가 모든 계층에 스며들어 있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교육, 직업)에의 접근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어서 계층이 낮을수록 큰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하위계층은 긴장을 줄이기 위해 범죄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경제적 성공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혁신적 적응을 하게 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머튼의 논리를 수형자들의 전과에 적용해 본다면, 수형자들 중에서도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누범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차별교제이론

서덜랜드(Sutherland and Cressey, 1978)는 범죄는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definition)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9개의 명제를 제시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논리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차별교제의 원리가 그 핵심이다. 서덜랜드는 차별적 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제의 빈도, 지속성, 우선성 등을 들고 있다.

수형자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교제이론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수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한 인격

적 집단이라면 동료 수형자들이고 이들은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 수형자가 존재할수록 혹은 그 수가 많을수록 누범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밖에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이 길수록 범죄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누범자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자기통제이론

대부분의 범죄이론이 범죄의 동기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동기보다는 이것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 이론은 허쉬(Hirschi, 1969)의 이전 이론인 사회통제이론과 더불어 고전주의적 기본 가정을 수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통제력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범죄를 회피하는 차별적인 경향으로 정의된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어려서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훈육의 결과로 발달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자기통제이론은 일반이론으로 제시되어서 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기통제력의 특징으로 다능성(versatility)이 주장되어져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기통제이론의 과감한 주장들은 지난 17년 동안 범죄학계에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공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상당한 경험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Pratt and Cullen, 2000).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다양한 비행(민수홍, 2006a; Allahverdipour et al., 2006)뿐 아니라 성인들의 여러 범죄(이태원, 2005; Higgins, 2005; Blickle et al., 2006)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비행이나 범죄 이외의 삶의 영역에서도 차별적인 자기통제력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Felson and Staff, 2006).

수형자집단을 대상으로 자기통제이론이 적용된 연구들도 늘어가고 있

다(민수홍, 2005; 2006b; De Li, 2005; Benda et al., 2006). 자기통제력과 전과에 대한 문(Mon, 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만에서 기업경영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기업이 환경범죄의 전과를 갖기 쉬운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수형자들의 전과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통제이론을 적용시켜 본다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수형자일수록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서 누범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예상된다.

4. 연구가설

가설 1) 사회긴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지위가 낮은 수형자일수록 전과가 많을 것이다.

가설 2) 차별교제이론에 따르면,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을수록 또한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이 길수록 전과가 많을 것이다.

가설 3)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전과가 많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수형자의 전과와 관련된 주요 correlates를 찾기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4년 후반기에 6개 교도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교도소는 안양, 대전, 광주, 마산, 대구 교도소와 우리나라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 교도소이다. 이들 교도소에서 모두 413명의 수형자를 조사하였고 이 가운데 상당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등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54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86.9%)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조병인 외, 2004).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for Windows(Version 14.0)를 사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주요 범죄이론으로부터 전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어 도출된 correlates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보았고, 주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긴장이론, 차별교제이론, 자기통제이론으로부터 각기 도출한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가. 경제적 지위

사회긴장이론의 관점에서 correlates로 예상된 수형자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형자 가구의 총 수입액과 수형자 가정이 생활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가구의 총수입액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귀하의 가족원들이 1년에 번 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까지 5개의 범주로 묶어 사용하였다.

나. 차별적 교제

차별교제이론에서 도출한 correlates로 수형자에게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과 수형자가 조사시점까지 교도소에서 보낸 총 복역기간을 개월 단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스미크 등(Grasmick et al., 1993)이 파악한 자기통제력의 6개의 하위영역을 활용하였다. 즉, (1)충동성(impulsivity), (2)단순한 일의 선호(preference for simple tasks), (3)위험한 일의 선호(preference for risk seeking), (4)신체적인 활동의 선호

(preference for physical activity) 혹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 (5)자기중심성(self-centered), (6)급한 성미(temper)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한 하위영역들과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을 각각 측정한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는 단순한 일의 선호를 나타낸다.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는 충동성을 주로 측정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는 위험한 일의 선호를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는 자기중심성을,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급한 성미를 측정한다.

이상의 6가지 문항에다가 행위적 측정문항으로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피웠습니까? (피웠다면)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의 문항과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의 2문항을 추가하여 자기통제력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 술과 담배의 사용은 자기통제력의 여러 가지 하위영역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흡연과 음주경험을 묻는 문항과 경험이 있다면 처음 사용할 당시의 나이를 묻는 두 문항을 사용하여 각기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³⁾. 위에서 열거한 8개 문항으로 태도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을 통합하여 측정한 자기통제력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값은 .76으로 나타났다.

라.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령은 응답자가 제시한 출생년도를 가지고 계산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0’, 남자를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술, 담배를 한 경우에도 그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즉각적인 욕구충족의 추구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술, 담배를 하는 경우를 시작 시점에 따라서 ‘13세 이전 시작,’ ‘14-15세 시작,’ ‘16-17세 시작,’ ‘18-19세 시작,’ ‘20-21세 시작,’ ‘22세 이후 시작,’ ‘사용하지 않았다’의 7개 범주로 나누고 각기 1, 1.5, 2, 2.5, 3, 3.5, 4의 값을 부여하였다.

수형자들의 교육수준은 4개의 등급으로 묶어 측정하였다.

마. 전 과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되는 수형자의 전과는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으로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빈도와 백분율은 <표 1>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각기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성별을 보면, 남자 수형자가 84.4%, 여자 수형자가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여성 수형자의 비율이 2004년도 공식통계상의 여성 수형자 비율인 5.1%(범죄백서, 200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 수형자를 분석가능한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 유의표집을 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졸업한 수형자가 가장 많고(54.0%), 그 뒤를 이어 초급대학을 중퇴했거나 졸업한 경우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수형자(18.5%)로 나온다. 이러한 교육수준은 당시 전체 수형자들의 교육수준에 비하면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능력이 부족한 수형자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로 수형자들의 가구 총 수입액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27.5%), 그 뒤를 이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25.1%), 4000만원 이상(20.5%),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4.1%),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2.8%) 순으로 나온다. 수형자의 가정이 생활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물어 보았을 때 14.4%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가구 총수입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27.5%)의 절반정도에 이르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여부를 알려준다.

<표 1> 성별, 교육, 경제적 지위, 수형자 친구, 전과의 분포

변 수	내 용	빈 도	백분율/공식통계*
성 별	0. 여자	56	15.6/ 5.1
	1. 남자	303	84.4/94.9
교 육	1. 무학, 초등학교 중퇴, 졸업	35	9.9/10.1
	2. 중학교 중퇴, 졸업	62	17.6/30.6
	3. 고등학교 중퇴, 졸업	190	54.0/50.9
	4. 초급대학 중퇴, 졸업 이상	65	18.5/ 8.4
가구 총 수입	1. 1000만원 미만	90	27.5
	2. 1000 - 2000만원 미만	82	25.1
	3. 2000 - 3000만원 미만	46	14.1
	4. 3000 - 4000만원 미만	42	12.8
	5. 4000만 원 이상	67	20.5
생활보호 대상 여부	0. 비대상가구	302	85.6
	1. 대상가구	51	14.4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0. 없다	141	39.3
	1. 있다	218	60.7
전 과	1. 1범	151	43.3/46.6
	2. 2범	92	26.4/23.0
	3. 3범	49	14.0/10.6
	4. 4범	21	6.0/ 6.8
	5. 5범 이상	36	10.3/13.0

*범죄백서(2005)에 발표된 2004년도 수형자 통계

<표 2> 연령, 교도소 총 복역기간, 자기통제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연 령	36.78	10.14	19 ~ 67
교도소 총 복역기간	62.77	66.98	3 ~ 318
자기통제력*	25.44	4.0	11.5 ~ 32

※ 위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 변수의 지표들의 단순합산을 기초로 산출됨

넷째로 교도소 안에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60.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9.3%는 다른 수형자들과 교류를 하

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수형자들 전과를 보면, 초범이 가장 많고(43.3%), 2범(26.4%), 3범(14.0%), 5범 이상(10.3%), 4범(6.0%)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2004년도 공식통계에 나타난 수형자들의 전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표 2>를 보면 수형자들의 평균연령이 36.8세이고 평균 누적 복역기간은 62.8개월로 5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7%가 누범자인 사실과 더불어 이들이 이미 상당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죄성이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다.

분석의 다음 단계로 사회긴장이론, 차별교제이론,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기 도출된 요인들과 수형자의 전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N=274)

구 분	(1)	(2)	(3)	(4)	(5)	(6)	(7)	(8)
(1) 성 별								
(2) 연 령	-.100							
(3) 교 육	-.007	-.140*						
(4) 가구총수입	-.014	.110*	.296***					
(5) 생활보호대상	.070	-.017	-.178**	-.226***				
(6) 교도소 총 복역 기간	.218***	.245***	-.230***	-.178**	.038			
(7) 친한 동료 수형 자 유무	-.034	-.055	.011	.019	-.063	.170**		
(8) 자기통제력	-.269***	.380***	.075	.208***	-.086	-.099	-.022	
(9) 전 과	.264***	-.010	-.208***	-.158**	.105*	.239***	-.023	-.302***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3>에는 이 연구에 포함된 요인들 간의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보았다. 성별은 교도소 총 복역기간, 전과, 자기통제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남자 수형자가 여자 수형자에 비해 전과가 많고, 총 복역기간이 길었으며, 자기통제력은 낮았다. 수형자의 연령은 교육, 가구 총수입, 교도소 총 복역기

간, 자기통제력과 관계가 있었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 총 수입액은 많았다. 연령은 총 복역기간, 자기통제력과 각기 정의 관계를 나타내서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고 교도소 총 복역기간도 길었다. 교육수준은 가구 총수입, 생활보호대상 여부, 총 복역기간, 전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형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총 수입이 많았고 생활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과가 낮았고 총 복역기간도 짧았다.

<표 4> 수형자의 전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과
성 별		.17**
연 령		.05
교 육		-.13*
가구 총 수입		-.04
생활보호대상 여부		.03
교도소 총 복역기간		.13*
친한 동료수형자 유무		-.04
자기통제력		-.24***
R2		.19
F비		7.65***
사례수		274

*: $p < 0.05$, **: $p < 0.01$, ***: $p < 0.001$

note: 위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회귀계수임.

다음으로 경제적 지위가 다른 요인들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형자의 가구 총수입액은 생활보호대상여부, 자기통제력, 교도소 총 복역기간, 전과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구 총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자기통제력은 높게 나왔다. 가구 총수입이 많을수록 전과가 적었고 총 복역기간이 짧았다. 한편 수형자 가정의 생활보호대상여부는 전과와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어 보호대상인 경우가 전과가 많았다. 사회긴장이론에서 도출한 두 요인 모두 수형자의 전과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있었고 관계의 방향도 예견된

방향에서 관찰되었다.

차별교제이론에서 도출한 요인 중에서 먼저 총 복역기간을 보면, 수형자의 총 복역기간이 길수록 교도소 내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었고 전과는 높았다. 차별교제이론의 요인과 전과사이에서 예측되었던 관계는 총 복역기간에서만 나타났고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부분적인 지지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은 이론의 예측대로 전과와 부(-)의 관계를 보여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전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요인들 가운데 자기통제력은 수형자의 전과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r=-.30$)를 보였다.

세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요인들이 수형자의 전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성별과 교육이 수형자의 전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남자 수형자의 전과가 여자보다 높았고 수형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과가 낮았다. 사회긴장이론에서 도출한 두 요인인 가구 총 수입액과 생활보호대상 여부는 수형자의 전과에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별교제이론에서 도출한 두 요인 중 총 복역기간 하나만 수형자의 전과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고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은 전과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전과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경제적 지위, 차별교제 요인, 자기통제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전과를 설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는 .19로 나왔고 독립변수들 가운데 자기통제력의 표준회귀계수값(-.24)이 가장 크게 나왔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가설들과 연결 지어 정리해 보면, 사회긴장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요인 둘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가설 1)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차별교제이론으로부터 도출한 2개의 요인 가운데 교도소 총 복역기간 만이 수형자의 전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서 가설 2)는 부분적인 지지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가설 3)은 온전한 경험적 지지를 받았다.

V. 논 의

수형자들의 전과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이 출발점으로 삼았던 질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의 전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correlates를 보다 경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범죄 이론 3개로부터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모두 5개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회긴장이론에서 도출된 두 요인 모두 수형자의 전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차별교제 이론에서 도출한 요인 둘 가운데는 교도소 총 복역기간 만이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했을 뿐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는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자기통제이론에서 도출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은 예상대로 수형자의 전과에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주요한 correlates임을 보여 주었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분석결과에 대해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경험적 분석에서 전과의 유의미한 correlate로 나온 총 복역기간은 가설 2)의 논리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과가 많으면 그 결과로 총 복역기간은 길어지기 쉽다. 즉 총 복역기간은 차별교제이론의 논리가 아니라 누범이 가져오는 결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횡단적 자료다보니 correlates와 수형자의 전과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과관계에서 요구되는 원인의 시간적 우선성 조건이 충족되려면 패널자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단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한편, 패널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청소년개발원은 2004년도부터 청소년비행을 포함하는 패널연구를 국내 최초로 수행해오고 있으나 패널차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식 비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에 대해 testing effect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패널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과연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민

수홍, 2006a; 김기현, 민수홍, 200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되어져야할 것이다. 범죄와 비행의 분야에서 패널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될 때까지는 잘 수집된 횡단적 자료의 활용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파악된 수형자 전과의 correlates가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적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들은 범죄이론의 기초가 되고, 범죄관련 논쟁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 민수홍. 2006.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중단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수홍. 2005. “수형자의 자기통제력과 차별교제가 교도소 내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6(4):301-329.
- 민수홍. 2006a.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 자료를 이용한 인과성과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27-47.
- 민수홍. 2006b. “수형자의 교도소 내 징계경험: 자기통제이론 대 낙인이론의 경합” 형사정책 18(1):229-254.
- 법무연수원. 2005. 「범죄백서」
- 이수정, 변지은. 2001.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349-387.
- 이태원. 2005. “낮은 자아통제와 병리적 도박: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e)」의 경험적 검증” 형사정책연구 16(2):75-106.
- 장영민, 탁희성. 1994. 「누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원혜옥, 민수홍, 이경재. 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llahverdipour, Hamid, Alireza Hidarnia, Anoushiravan Kazamnegad, Froug Shafii, Parviz Fallah A., and Azita Emami. 2006. "The status of self-control and its relation to drug abuse-related behaviors among Iranian male high school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4):413-424.
- Benda, Brent B., Nancy J. Toombs, and Mark Peacock. 2006. "Distinguishing graduates from dropouts and dismissals: Who fails boot camp?"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27-38.
- Blickle, Gerhard, Alexander Schlegel, Pantaleon Fassbender, and Uwe Klein. 2006. "Some personality Correlates of business white-collar crim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2):220-233.
- De Li, Spencer. 2005. "Race, self-control, and drug problems among jail inmates," *Journal of Drug Issues* Summer:645-664.
- Higgins, George E. 2005. "Can low self-control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oftware piracy problem?" *Deviant Behavior* 26(1):1-23.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ravis and Michael Gottfredson.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552-584.
- Felson, Richard B. and Jeremy Staff. 2006. "Explaining the academic performance-delinquency relationship," *Criminology* 44(2):299-320.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arold G., Charles R. Tittle, Robert J. Bursik, Jr., and Bruce 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72-682.
- Mon, Wei-Teh. 2002. "Causal factors of corporate crime in Taiwa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2):183-205.
- Pratt, Travis C. and Francis T. Cullen.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931-964.
- Sutherland, Edwin H. and Donald R. Cressey. 1978. *Criminology*. Tenth Edi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Prison Inmates' Criminal Records and Their Main Correlat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economic status, total served time, prison-mates,
self-control): Theoretical Expectations and Empirical Tests

Min, Suhong*

Five correlates of prison inmates's criminal records were drawn from 3 major crime theories. Total household income and receipt of welfare drawn from social strain theory were turned out to be not related to inmates' criminal records. Total served time drawn from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was related to inmates' criminal records while having prison-mates, another elemen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as not. Inmate's self-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is/her criminal records. Thus empirical test results give full support to self-control theory, partial support to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nd no support to social strain theory.

주제어 : 피수용자, 수형자 전과, 자기통제, 경제적 지위, 차별교제

Keywords : prison inmate, criminal records, self-control, economic status, differential association

* Associate Professor, Ph. D. in Soci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 Kyonggi University